

제19장

일곱째 환상: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21:1-22:5)

일곱째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새 창조와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21:1-22:5 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21:1-8)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둘째 부분(21:9-22:5)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한다.

1. 새 하늘과 새 땅(21:1-5)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1 절)이 도래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다 소멸되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창조는 현존하는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무의 상태로 돌아간 후 다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의미한다. 갱신은 현존하는 우주 만물을 없애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새롭다’에는 두 종류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이다. ‘네오스’는 천지창조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실체’를 의미하며, ‘카이노스’는 옛 것을 다듬어 새 것으로 만들어진 철저하게 변화된 실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는

헬라이어 단어 ‘카이노스’를 사용하였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하늘과 땅의 재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옛 하늘과 땅을 완전히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갱신인 것을 의미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 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갱신’이라는 사실을 잘 증거해 준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와 ‘새 하늘과 새 땅’은 서로 교차대칭되는 관용구이다. 즉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에서 ‘새롭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기존의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옛 하늘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오염되고 변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계획하신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여 완성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였음을 말한다.

바울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고 진술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0)

이 땅의 피조물은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의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 지금 썩어짐의 종 노릇 하고 있지만, 장차 교회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피조물도 현재의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구속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피조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의 부활한 몸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 성도들의 부활한 몸은 현재의 육체적인 몸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현재의 육체적인 몸과 동일한 모습의 몸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 된다. 즉 썩어지고 없어지는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적인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즉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썩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와 같이 변화되어 옛 하늘과 옛 땅과는 질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2.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21:1-8)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2 절) 같다고 진술한다.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21:9)고 하면서 요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21:10)을 보여 준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된 신부인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부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의 혼인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3 절은 어린 양과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3 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단장된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다.

3.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21:9-22:5)

21:9-22:5 절은 신부로 단장한 교회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12 개의 진주문과 12 보석으로 꾸며진 12 기초석(기둥)이 있다. 영국인 필시 콜레는 ‘내가 본 천국’에서 자신이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 12 진주문과 12 보석을 가진 12 기초석(기둥)을 보았다고 간증한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필시 콜레가 본 천국과 일치하는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12 문과 12 기둥은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 모양을 살펴보자.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의 모양인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2,400km)이다(16 절). 이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약 6 배가 넘는 거리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벽(성곽)으로 둘러 싸여 있는데, 그 성벽의 높이는 144 규빗(70 미터)이다(17 절). 그리고 그 성벽은 12 개의 문과 12 개의 기둥(기초석)으로 되어 있다(12,14 절).

12 문과 12 기둥에 대해 좀더 살펴본다면, 12 문은 12 진주로 되어 있으며 각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12 절). 12 문은 동쪽에 3 문, 서쪽에 3 문, 남쪽에 3 문, 북쪽에 3 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문마다 12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겔 48:30-35 절을 그 배경으로 한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예루살렘을 출입하기 위해 각 지파마다 자신의 입구가 있으며, 12 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요한도 12 문도 새 예루살렘의 12 문은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는 12 기둥이 있다. 12 기둥은 12 가지의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각 기둥은 각 한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19-20 절). 기둥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14 절)이 적혀 있다.

지금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문과 기둥을 모두 12 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12 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12 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한다. 12 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12 사도는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는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 문과 12 사도의 이름이 있는 12 기둥으로 이루어진 성벽은 새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도 마찬가지로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는 12x12x1,000이라는 숫자로 배합된 수다. 그 성의 성벽도 높이가 144 규빗인데, 이 또한 12x12라는 숫자로 배합된 수다.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성벽의 높이를 통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신.구약의 완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둥이 12 가지 각종 보석으로, 12 문은 진주로, 그리고 성 자체는 벽옥과 정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금과 보석과 진주는 이 땅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귀하게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나타낸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은 사 54:9-12 절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내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새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묘사하였는데, 그 성은 여러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이 되었다.

보라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사 54:11-12)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 된 새 예루살렘 성의 단장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묘사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새 예루살렘 성을 꾸민 각종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에덴동산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에덴 동산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였으며, 성전과 에덴 동산도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 즉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벽과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졌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옷도 여러 보석으로 꾸며졌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도 12 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가 붙어있고, 에봇의 어깨 쪽에는 12 개의 보석이 박힌 호마노 견장이 달려 있다(출 28 장). 흉패와 견장에 달린 각 12 보석에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각 보석마다 하나씩 새겨져 있다. 여기에서 이 보석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제사장의 에봇에 장식된 12 보석과 견장에 박힌 12 보석은 동일한 보석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 기둥에 꾸며진 12 보석과 동일한

보석이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도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한 보석들로 단장되었다고 진술한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겔 28:13)

이러한 보석 모티브는 에덴 동산과 성전의 실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즉 에덴 동산과 성전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완성된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과 성전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천국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한 모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석은 또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하였음을 상징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다”(11 절)고 진술한다. ‘빛나는 보석과 벽옥과 수정’은 ‘영광과 존귀와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한다. 이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한 빛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진술한다(22 절).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임재하셨던 장소였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전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 오셨다(요 2:21).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히 새 예루살렘 성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다. 이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 새 예루살렘과의 완전한 결합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실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4. 에덴의 새 동산으로서 새 예루살렘(22:1-5)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된, 즉 완성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첫 창조인 에덴 동산은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 나무들, 동물들은 충만하게 성장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완성이로 나아가야 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완성이로 나아가기도 전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피조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이다.

옛 에덴 동산은 동산 꼭대기에서 네 개의 강이 갈라져 흘러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겔은 종말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와 모든 생물을 살리고 각종 과실을 맺게 하여 사람들을 풍성히 먹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겔 47:1-7). 이때 요한은 이 에스겔의 예언을 인용하여 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나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열매와 잎사귀들을 맺도록 적시고 있다고 진술한다.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1-2 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생명수 강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회복되고 완성된 새 에덴 동산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 내리는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매달 12 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 세상의 나무는 일 년에 한두 번 열매를 맺지만, 이 생명나무는 매달 12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는 곳인지를 보여 준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2:7). 이 땅에 범죄한 인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 또한 승리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상징한다. 이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예비되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종말에 천상의 교회를 위해 예비된 열매였음을 보여 준다.